한마음선원 독일지원 새 도량 건립 '본격화'

6월 28일 현지서 기공법회
법당·마음강당 조성 추진
30년 독일 현지 전법 결실
유럽 수행공동체 도약 기대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독일과 유럽에서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이 새 도량 건립 불사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지원장 혜진 스님)이 6월 28일(현지시각) 독일 카아스트(Kaarst)에 위치한 독일지원 신축 부지에서 새 도량 기공법회를 봉행하고 유럽 수행공동체로의 성장을 위한 불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기공법회에는 한마음선원 국내외 사부대중과 독일지원 신도들을 비롯해 카아스트 전·현직 시장과 가톨릭·개신교·이슬람교 등 이웃 종교 관계자, 지역사회 인사들이 함께 자리했다.

독일지원은 2015년부터 불교·가톨릭·개신교·종교학자 등이 참여하는 '카아스트 종교 간 대화(Kaarster Glaubengespräch)'를 개최하며 지역사회와 꾸준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기공법회 역시 지난 30년간 지역사회와 쌓아온 신뢰와 화합을 보여주는 자리로, 참석자들은 새 도량이 종교와 문화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성장하는 수행공동체가 되기를 발원했다.

이번 불사는 법당과 마음강당을 조성해 더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공부하고 수행할 수 있는 도량의 기반을 넓히기 위해 추진됐다. 1996년 개원 이후 30년간 독일 사회에 뿌리내려 온 한마음 수행공동체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한마음선원 재단 이사장 혜수 스님은 치사를 통해 대행 선사가 독일지원에 내려준 "눈 뜨고 귀 열린 세계인들이 마음을 깨달아가는 한마음 도량"이라는 의미를 되새기며 지난 30년간 도량과 신도들이 함께 성장해 온 시간을 돌아봤다.

혜수 스님은 "개원 당시 어린이들이 장한 청년으로 성장해 선원의 큰 일꾼이 되고, 신도들도 세월과 함께 마음 도량을 넓혀왔다"며 "지금 다시 불사를 시작하지만 이미 이 도량은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튼튼한 기둥과 거목으로 큰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공법회를 함께한 지역사회와 이웃 종교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이 불사를 인연으로 눈 뜨고 귀 밝은 인연들이 더 많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일에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독일지원의 새로운 도약을 격려했다.



6월 28일(현지시각) 독일 카아스트 신축 부지에서 열린 한마음선원 독일지원 새 도량 기공법회에서 재단 이사장 혜수 스님이 치사를 하고 있다.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독일지원이 이어온 수행과 전법의 원력을 되새기며 새 도량 불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혜솔 스님은 "법당 불사는 개인이 깨어나 지혜로워지고 가족이 화목해지며, 진정한 삶의 뜻과 걸림 없는 무애행을 배우는 학교를 만드는 일"이라며 "새 불사를 계기로 독일지원의 간절한 발원이 다시 점화돼 한마음의 에너지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기를 바란다"고 발원했다.

한스욕 에플레 독일지원 회원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국내외 사부대중과 지역사회, 이웃 종교 관계자들의 참석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의 과거와 미래'를 주제로 지난 30년간 독일지원이 걸어온 여정과 새 도량 불사를 통해 이어갈 앞으로의 비전을 소개했다. 독일지원이 수행과 전법의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 및 이웃 종교와 교류하며 성장해 온 과정을 돌아보고, 새 도량이 더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수행하며 한마음의 가르침을 나누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했다.

만프레트 후터 독일 본대학 명예교수는 독일 한마음아카데미의 의미와 역할을 소개했으며, 기도 휠스만 건축가는 새 도량의 조감도와 건축 계획을 설명했다. 새롭게 조성될 공간은 법당과 마음강당을 중심으로 수행과 교육, 만남과 교류가 함께 이루어지는 도량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독일지원의 설립 배경에는 독일 물리학자 헬무트 글루브레히트 교수와 대행 선사의 인연이 있었다. 글루브레히트 교수는 물질세계와 정신세계가 함께 발전해야 하며 인간의 내면적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에 깊이 공감했고, 유럽에서도 이러한 수행의 길을 접할 수 있도록 독일지원 설립에 힘을 보탰다. 이러한 원력 속에서 독일지원은 1995년 독일 중부 뒤셀도르프 근교 카아스트 지역에 도량 매입 계약을 체결하며 유럽 포교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듬해 지원장 혜진 스님과 총무 혜백 스님이 독일에 도착해 개원을 준비했으며, 1996년 10월 6일 대행 선사를 모시고 개원 법회를 봉행했다.

당시 대행 선사는 물질세계만 고도로 발전하고 정신세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다"고 설했다. 이어 물질계와 정신계가 둘이 아닌 가운데 함께 발전해야 인간이 자유를 얻고 세계의 화합을 이룰 수 있음을 강조했다.

독일지원은 이러한 선사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지난 30년간 수행과 전법, 번역·출판, 문화교류와 종교 간 대화를 이어왔다. 1998년 독일불교연합(DBU)에 가입해 현지 불교계와의 교류를 확대했으며, 한국어·독일어 홈페이지 개설과 대행 선사 법문집 및 우화집의 독일어 번역·출간 등을 통해 스님의 가르침을 유럽 사회에 꾸준히 소개해 왔다. 1999년 라팅엔 시립홀에서 열린 대행 선사 독일대법회 '해탈의 문'에는 약 2000명의 독일인이 참석했으며, 2001년 에센 글루가홀에서 열린 독일대법회 'Einklang'에는 약 4000명이 동참했다.

이후 독일지원은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박람회 참가, 독일 신도들의 한국 성지순례, 독일어 법문집과 오디오북 출간, 종교 간 대화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며 독일 사회 속에 한마음 수행공동체의 기반을 다져왔다.

독일지원은 이번 법당과 마음강당 불사를 계기로 지난 30년간 이어온 수행과 전법, 지역사회 및 이웃 종교와의 교류 기반을 더욱 넓혀갈 예정이다.

"포교사 역할 재정립·제도 안정화 시급"

조계종 포교사단 40주년 토론회
미래세대·청년 포교사 양성
온라인·디지털 포교 부족 고찰

조계종 포교사단 40주년을 맞아 열린 토론회에서 변화하는 종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포교사 역할 재정립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청년 포교사 양성과 전문교육 체계 구축, 디지털 포교 역량 강화 없이는 미래 포교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조계종 포교부(부장 정무 스님)는 7월 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포교사단 40년 성찰과 미래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불교 대전환 시대, 포교사단의 방향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포교사단 40년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시대 변화에 걸맞은 포교사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종안 포교사단 부단장〈사진〉은 발제 '불교 대전환 시대, 포교사 제도의 방향'에서 현행 포교사 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활동의 불안정성을 지적했다. 박 부단장은 "교구본사나 재적 사찰 주지 스님 및 포교국장 스님의 소임 이동 등의 교체시기에 수년간 공들여 놓은 법회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중단되거나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찰 스님들의 임기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최조한의 제도적 보호 장치가 종단과 교구 차원에서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해 현장의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청년 및 MZ 세대와의 접점 약화와 온라인·디지털 포교 역량 부족도 제기했다. 청년 포교사 집중 양성이 필요성을 강조한 박 부단장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현 상황에서 젊은 포교사들은 더욱 중요해졌다"며 "젊은 층이 포교사 활동에 매력을 느끼고 동참할 수 있도록 청년 포교사에 대한 장학 지원, 전문 역량 인증제(자격증제도), 유연한 활동 시간 보장 등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세대교체 없는 조직에는 미래가 없다. 젊은 포교사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판을 짜주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포교 전략도 주요 화두였다. 종합토론에 참여한 김응철 중앙승가대학 교수는 "디지털 시대에 홈페이지, 카페, 밴드 등 기본적인 SNS 활용을 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곳이 많다"며 "SNS를 활용하지 않으면 미래세대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사찰 소식과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디지털 보시'를 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불교 대전환 시대, 포교사 제도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 김관태 전 조계종 포교원 포교과장은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포교사 제도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포교사를 단순한 봉사 인력이 아닌 전문 재가포교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지운 기자



반복되는 재해…"희생자 추모"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는 7월 6일 서울 SK에코플랜트 본사 앞에서 철도 공사 현장에서 숨진 이주노동자의 넋을 기리는 추모 기도회를 봉행했다. 이들은 사고 진상 규명과 원청의 책임 조치 및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현희 기자

"화두, 머리 아닌 몸으로 하는 공부"

동국대 종학연구소, 7월 3일
'간화선 수행'…수불 스님 법문

"이번 수행 기간에는 목 위로 올라오는 공부는 하지 말라. 화두는 머리로 하려면 안 된다. 온 몸으로 하는 공부다."

동국대 불교학부 석좌교수 수불 스님(안국선원장)은 7월 3일 만해관 좌선실에서 열린 '간화선 집중수행 프로그램' 입재 법문에서 대중들에게 간화선 수행의 자세와 화두 참구 요령을 일렀다.

스님은 수행 중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장애로 졸음을 들었다. 수불 스님은 "앉아서는 졸지 말고 몇 시간이라도 좋으니 실컷 자고 깨끗한 마음으로 공부하라"며 "잠은 너무 많아서도 안 되고 너무 모자라서도 안 된다"고 재차 당부했다.

또 수불 스님은 "쓸데없는 생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자신이 해오던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려지기도 한다"며 "나는 화두만 들면 된다. 화두에만 관심이 있지 번뇌망상에는 관심이 없다는 마음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날 수불 스님은 대중에게 손가락을 세우고 튕기게 한 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합니까"라는 화두를 제시했다. 스님은 "눈으로 하여금 보게 하고, 입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그것을 '마음'이라고 말한다고 답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중들에게 믿음과 각오도 누차 당부했다. 스님은 "믿고 해야 한다. 오로지 간절히 참구하다"고 입재 대중을 격려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정도 스님)가 주관한 이번 프로그램에는 출재가자 60여 명이 참가해 7월 9일까지 진행됐다.

신중일 기자

올여름도 전국 산사서 '불교영화' 만난다

2026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
7월 14일, 평창 월정사서 개막
9월까지 20여 편 영화 상영

2026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가(OIBFF)가 7월 14일 평창 월정사를 시작으로 올여름 전국 산사에서 진행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정원주·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이 주최·주관하는 '2026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이하 OIBFF)'가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주요 사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영화제에는 장편영화 '절해고도' '젠(ZEN)' '더 컵(The Cup)' '낭낙'을 비롯해, 전 세계 114개국에서 총 1743편의 단편영화가 출품됐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단편작 20편(15개국)이 영화제를 통해 관객과 만난다.

7월 14일 평창 월정사에서 영화 '절해고도' 첫 상영과 김미경 감독이 참여하는 관객과의 대화, 월정사 글로벌 리더 여름 캠프 프로그램으로 영화제의 막을 올렸다. 7월 18일 대구 동화사에서는 영화 '젠' 상영과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8월 8일 고창 선운사에서는 영화 '더 컵' 상영과 여름수련회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8월 22일에는 양양 낙산사에서 영화 '젠' 상영과 서핑 템플스테이, 가수 하림의 공연이 마련된다. 또 8월 29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는 영화 '절해고도' '더 컵' 상영 및 행복바라미 음악회가 열린다. 9월 12일 제주 관음사에서는 영화 '더 컵' 상영과 '어린이와 함께하는 연극&영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박지운 기자

기자칼럼

다시 차별금지법을 생각한다

고교야구장에서 터져 나온 응원 구호가 한국 사회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6월 29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 대회의 배재고와 광주일고의 경기에서 배재고 학생들은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라는 응원을 율동과 함께 했다. 언급된 '스타벅스'와 '탱크데이'는 지난 5월 스타벅스코리아가 진행하다 논란을 빚은 마케팅 문구로 풀이된다.

이 같은 응원이 SNS와 언론에 거론되며 5·18민주화운동과 광주 지역을 조롱했다는 비판이 확산됐으며 논란은 경기장을 넘어 사회적 공분으로 확산됐다. 여기서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점은 여러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구호와 율동을 맞추며 상대방을 조롱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교실의 학생들에게 혐오와 조롱이 일종의 놀이 문화로 소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혐오는 거친 폭언으로만 오지 않는다. 때로는 장난, 밈, 응원, 패러디, 문화코드, 또래집단의 웃음으로 모습을 바꾼다. 혐오 문화가 놀이화되기 시작하면 가해자는 '또래 집단 문화의 재미'라는 수식에 숨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정작 보호돼야 할 피해자는 '예민하다'고 치부되며 또 다른 상처를 받는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차별금지법'을 생각하게 된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가 어떤 말과 행동을 차별로 보고, 어떤 기준으로 인간의 존엄을 지킬 것인지 정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혐오가 놀이가 되기 전에 멈추게 하고, 차별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방치되지 않게 하는 공적 기준이 필요하다.

불교계가 오래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가 존엄하며, 서로 의존해 살아간다는 연기의 통찰 위에 서 있다. 타인의 고통을 웃음거리로 삼는 말은 불교적으로도 구업(口業)이며, 악구(惡口)다. 혐오 표현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공업(共業)이다.

물론 법 하나가 제정됐다고 해서 사회의 혐오 문화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렇기에 혐오와 편견의 반대편에서 서서 평등과 자비를 이야기하는 불교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친구, 자녀, 동료들이 알게 모르게 행하는 혐오 발언에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이를 바로 잡아가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무지에서 비롯된 혐오를 지혜로 돌리고, 조롱의 언어를 자비의 언어로 바꾸는 일. 그것이 불교계가 사회 전반의 혐오 문화를 줄이기 위해 먼저 선행해야 할 과제다.



신중일 편집국 부국장